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26이 열린 가운데, 교내 구성원이 주축이 된 스타트업 세 팀이 참여했다. 의료·로봇·농업 등 AI의 가능성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한 세 기업의 대표를 만나본다.



AI 반력로봇 '터보'

자율·자유전공학부의 전공 진입 선택을 미친 가운데, 수업·공간 운영 부담과 예산 편성 불이익 등의 우려에 대해 알아본다.

# 대학주보

## 양캠 비대위 기자 회견 “등록금 인상 반대”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두고 양 캠퍼스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에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16일 양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며 불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 기초를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제캠 박병준(국제학 2017) 비대위장은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결정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인상 결정이 과연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와 책임 있는 판단이었는지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이번 등록금 인상이 단년도 조정이 아닌 정책 기초의 변화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비대위장은 “학교가 재정 설명회를 통해 향후에도 불가상승률을 반영한 등록금 인상 기초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기존의 등록금 동결 중심 정책에서 사실상 방향 전환을 선언



양 캠퍼스 총학생회 비대위는 지난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 연계 지원형)이 폐지되는 시점은 27년도이기에 올해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예찬 기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비대위장은 학생 부담의 누적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 국면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인상은 단순 누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담을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6년은 국가장학금 제2유형 등 제도적 완충 장치가 여전히 유효한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학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인상을 선택한 점은 납득하기 어

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캠 황희원(응용통번역학 2024) 비대위장은 등록금 인상 논의 과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황 비대위장은 “재정 설명회와 간담회가 열렸지만 현재 구조는 등록금 고지서 발행 직전해야 핵심 결정이 공

유되는 사후 설명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표자가 매년 교체되는 학생 사회 특성상 정보가 충분히 축적·검토되기 전에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비대위장은 ▲등록금 고지서 발행 전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전 협의 구조 마련 ▲고등교육법 취지에 부합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법인 전입금 확대 방안과 등록금 인상분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우리신문이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나 수용 가능한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지를 묻자, 박 비대위장은 “0.1%를 인상하더라도 인상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등록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전제하면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3.1% 인상안이 타당 한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는 오는 20일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20일 열리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기사는 추후 온라인 발행될 예정입니다.

## 자율전공학부 47.8% 경영대학으로...문과대학은 0명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서울】자율전공학부(자전) 확대 개편 이후 첫 전공 신청이 마무리됐다. 경영대학 내 학과로의 진입을 선택한 학생은 66명으로, 기존 차출 인원 55명에 비해 11명이 늘었다. 반면, 문과대학의 경우 선택자가 나오지 않았다. 전공 선택 자격 요건 및 신청 기간은 국제캠 자율전공학부와 동일하다.

전공 선택 결과는 ▲정치외교학과 1명 ▲행정학과 1명 ▲미디어학과 1명 ▲사회학과 1명 ▲무역학과 2명 ▲경제학과 2명 ▲경영학과 28명 ▲회계세무학과 13명 ▲빅데이

터응용학과 25명 ▲Hospitality 경영학과 2명 ▲글로벌 Hospitality 관광학과 1명 ▲의상학과 2명 ▲수학과 4명 ▲물리학과 6명 ▲화학과 15명 ▲생물학과 6명 ▲약학과 13명 ▲글로벌리더 전공 15명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 기준으로는 ▲문과대학 0명 ▲정경대학 8명 ▲경영대학 66명 ▲호텔관광대학 3명 ▲생활과학대학 2명 ▲이과대학 31명 ▲약학대학 13명 ▲자율전공학부 15명이다. 이는 자퇴생 3명, 자퇴 예정 2명, 휴학생 37명을 포함한 미선택자 42명을 제외한 결과다. 실질적 전공 선택 인원 138명 중 66명이 경영대 학 내 학과로의 진학을 선택해 약

47.8%의 비율을 차지했다.

자전 학생들은 의약학계열, 간호과대학, 예체능계열,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학과를 제외하고 서울캠 내 모든 전공으로 진입 선택이 가능하다. 현재는 학사지원팀의 학적 이동 입력 단계로 최종 승인은 이번주 내에 이뤄진다.

자전 이정희 학부장은 “2024학번까지는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선호도가 높았었는데 2024년 첨단학과로 지정된 이후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로 개편되고 인원이 늘면서 2025학번 학생들부터는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며 “원래 정디로 많이 몰렸던 인원이 이과대 다른 학과나 약

과학과로 조금 고르게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자전은 학생들이 많은 학문 분야를 접하고 다양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 학부장은 “학생들이 문과대 사학과 철학과부터 해서 호텔관광대 조리푸드디자인까지 다채로운 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전공 탐색 과정을 적성 검사들을 통해서 자기 탐색을 하는 것부터 해서 각 단과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하는 토크콘서트, 현직자 선배 멘토링과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해 다양한 탐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경영대학, 이과대학의

학생들의 선호가 집중된 양상에 관해서는 “사회의 변화도 있고 1학년 학생들이라서 그런지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다”며 “학부모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취직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전공 선택을 하도록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학부장은 “2025학년도 서울대 인문대학 수시모집에서 철학과가 최고 경쟁률을 달성한 것처럼 미래 사회에서 분명 언어나 문화와 같은 인문학 분야가 주목받을 것”이라면서 “인문학이 기반 학문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선택에 있어서는 용기나 결단이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 2 종합

# ‘누가 쓰느냐’에서 ‘어떻게 쓰느냐’로 공간관리 시스템 오픈

서리수 기자 sooxoosoo@khu.ac.kr

총무관리처가 구축한 공간관리 시스템이 오는 3월 도입을 앞두고 있다. 공간을 개별 소속의 전유물이 아닌 대학의 공적 자원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간관리 시스템 논의는 지난 2022년부터 4년 넘게 이어져 왔다. 김경태 서울캠 총무관리부처장은 “처음 2년 반 동안은 구성원 간 시스템 필요성을 따지고 논의와 구상이 이뤄졌으며, 이후 1년 반 정도 실질적인 구축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축은 2024년 말부터 시작됐다.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 동안은 각 건물과 공간에 대한 기존 정보 수집과 도면 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뤄졌다. 현재는 정식 도입에 앞서 실제 공간 사용 현황과 전산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안정화 단계다.

공간관리 시스템은 양캠퍼스 공간 정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웹 기반 시스템이다. 건물명과 호실, 면적, 사용 용도, 사용 주체 등 기존에 여러 부서와 자료에 흩어져 있던 공간 정보를 하나로 묶고, 도면과 연동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스템 내 화면에 띄워진 도면에서 특정 호실을 클릭하면 해당 공간의 용도와 사용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공간대여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공간이 동일하게 개방되지는 않는다. 사용자의 신분이나 목적에 따라

접근 가능한 정보 수준이 달라지는데, 실제 공개 범위와 대여 승인 절차는 호실별 비품 관리, 단과대별 운영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공간 배정 원칙을 위한 공간관리 규정도 새로 제정된다. 앞으로는 규정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 공간 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배정 기준에는 학생 및 교원 수, 연구비 수주 규모, 실제 사용 면적과 기존 면적 등이 포함된다.

김 부처장은 “이전까지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정성적으로 공간 배정이 이뤄져 공간 배정에 어떠한 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배정할 것”이라 밝혔다.

한덕영 서울캠 총무관리처장은 “학생과 교원 등 대상별로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사항은 공간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간관리 규정이 제정되면 기준에 맞춰 시스템 도입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식 도입은 오는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식 도입 시에는 ▲단과대별 공간 사용 현황 ▲향후 공간 배정 및 조정 ▲학생 수 ▲교원 수 ▲이용률 등 정량적 지표를 참고할 수 있게 된다. 특정 단과대나 학과에 배정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다른 단과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공간을 개별 소속의 전유물이 아닌 대학의 자원으로 관리하겠다는 셈이다.

# 스스로 졸업 이루는 선택지 열려 ‘학사학위취득유예제’ 도입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졸업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졸업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동안 수료생에 준하여 교내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희망자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존 우리학교 졸업 유예 제도는 ‘수료’와 ‘졸업유예’ 두 가지 학적 상태로만 구분됐다.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졸업 기준 학점을 모두 이수했으나 졸업논문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 ‘수료’로, 졸업 기준 학점과 논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졸업유예’로 판정된다. 두 제도 모두 졸업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의 경우 일정 기간 졸업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졸업 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우리학교 학생들은 학적 상태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해 제57대 정경대학 학생회 ‘더나은’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이전부터 고려를 해왔던 학사지원팀과 의견이 맞아 도입에 성공했다. 정경대학 신하균(사회학 2023) 전 학생회장은 “타 학교와 달리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스스로 학적 상태를 정할 수 없어 편법으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 불편했다”며 “부득이하게 강제졸

졸업유예, 수료,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비교표

구분	졸업요건		수강여부 (졸업논문)	학적
	이수학점	졸업논문		
졸업유예	충족		가능	재학생
수료	충족	미충족	가능	수료생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수강	충족	불가능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
	미수강			

업 당하는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학사지원팀은 “어려운 취업 환경 속에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며 “이전처럼 일부러 졸업유예를 위해 일부러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가 도입되면서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재학연한 제도 또한 새롭게 마련됐다. 재학연한이란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재학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우리학교는 수업연한(4년제 대학기준)의 2배인 8년이다.

이 가운데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제도는 8년보다 짧은 기간인 최대 2년의 기간이 적용되고 ‘졸업유예’는 8년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수료’는 별도의 연한 제한이 없다. 재학연한 제도는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기존 수료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학사지원팀은 “학생들의 대체적인 취업공백 기간과 타 학교 사

례를 종합해 고려한 결과 2년이라는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청년층의 ‘취업한파’가 지속되며 졸업유예생의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사립대학교 6곳과 지방거점 국립대 9곳의 졸업 유예생은 최근 3년간 6215명에서 9857명으로 약 59% 상승했다. 우리학교 또한 최근 5년 동안 졸업생 대비 졸업유예생 비율이 8.7% 상승했다.

올해 4학년이 된 이서진(물리학 2022) 씨는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가 도입되면서 인턴이나 현장실습 같은 기회가 다양해진 것 같다”며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공백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심적 여유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서울캠 미래인재센터는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연이은 경기 침체로 고용 시장이 악화되며 졸업유예생 수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사취득유예제도는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



# 무전공 1년, 현실화된 선호 전공 격차 학문 전체 균형 발전 방안 모색해야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 우리학교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에 따라 지난 2025학년도 입학정원의 10%를 무전공으로 선발했다. 서울캠은 기존 자율전공학부를 확대 개편한 165명, 국제캠은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해 241명의 학생들이 무전공 교육과정을 거치고 전공 진입 선택을 마쳤다. 우리신문은 무전공 제도 개편 첫해를 맞아 지난 1년 간의 제도 운영을 돌아보고 보완 과제는 무엇일지 점검해본다.

## 상담·전공박람회 전공 선택에 도움돼

자율·자유전공학부는 전공 선택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1년간 다양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단과대·학과별 전공 설명회와 전공박람회, 상담, 멘토링 등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이 특정 전공을 미리 경험하고 다양한 전공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정이다. 그중 학생들은 상담과 전공박람회를 전공 선택에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꼽았다.

유지혁(자유전공학 2025) 씨는 “과를 선택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전공 박람회였었던 것 같다”며 “공대 혹은 전정대쪽으로 선택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를 갈지는 못 정한 상태였었는데, 전공박람회 전자공학과 부스에서 졸업생들의 취업 경로와 같은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보며 전자공학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설명했다.

정태민(자율전공학 2025) 씨 또한 “단순히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평소에 조금 생소했던 분야의 교수님들을 뵈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됐다”며 “추후 다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뚜렷한 전공 선호 양상 그 또한 탐색의 결과

진입 전공 최종 선택 결과 서울캠 자율전공학부는 전체(자퇴·휴학인원 제외)의 47.8%인 66명이 경영대학, 국제캠 자유전공학부는 54%인 107명이 전자정보대학으로의 진입

## 자율·자유전공학부 전공 선택 결과

서울캠 자율전공학부	
단과대학	선택 인원
정경대학	8명
경영대학	66명
호텔관광대학	3명
생활과학대학	2명
이과대학	31명
약학대학	13명
자율전공학부	15명

국제캠 자유전공학부	
단과대학	선택 인원
전자정보대학	107명
공과대학	48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28명
생명과학대학	11명
응용과학대학	4명

※ 표기되지 않은 단과대는 선택 인원 0명

을 선택했다. 반면 문과대학, 외국어대학, 국제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 선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아 특정 분야에 대한 선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은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현재 수치만으로 제도의 성패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지금은 이 현상이 일시적인 유행인지, 혹은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인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자율·자유전공학부 측은 이를 단순히 전공 쏠림 현상으로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성적 제한이나 인원 조정 없이 이뤄진 전공 선택 과정에서, 학생들이 1년간의 전공 탐색과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 현재의 분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유전공학부 배재형 학부장은 이번 전공 선택 결과를 학부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준 것뿐이고, 학생들이 이를 활용해 꾸준한 탐색을 통해 선택한 결과라고 말했다.

배 학부장은 “입학 당시 기계공학과를 가겠다고 거의 마음을 굳히고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응용수학과를 선택한 여학생이 있다”면서 “학기 말에 전공 탐색 과정을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내도록 했는데, 그 학생의 보고서를 읽어보니 대학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미처 생

각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고, 기계공학과에서 응용수학으로 진로가 변하게 된 과정이 잘 드러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율전공학부 이정희 학부장은 “‘직업’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경영대학 쪽으로 몰리긴 했지만, 사실 사학, 철학학부에서 해서 조리푸드디자인학과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분야로 관심이 쏠려 있고 고민도 많았던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입학 당시에는 막연하게 빅데이터응용학과로의 진학을 생각했다”면서 “1년을 겪다 보니 데이터 분야도 좋지만, 경영회계와 같은 다른 분야도 더 알아보고 싶어서 조금 더 포괄적인 분야인 경영학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과정들이 사실 학과 고민보다는 진로 고민을 하는 과정”이라며 “1년 동안 온전히 진로 탐색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았다”고 덧붙였다.

## 수업·공간 운영 부담 현실화 강의 증설·공간시스템 적용

학생들의 선택이 특정 전공으로 집중되면서, 전공 진입 이후의 학과 운영 여건 역시 함께 주목된다. 자유전공학부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전자공학과는 전공필수 과목을 증설했다.

전자공학과 유재수(정보통신공

학) 교수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00명 정도의 수요를 파악하고 대학과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26학년도 1학기에 수강이 예상되는 전공기초 및 주요 전공필수 과목의 기존 50명 대면 강의를 150~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로 개설을 추진했다”며 “수강희망담기의 수요조사를 통해 하이브리드 강의 등 여러 방안을 보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과대학은 기존 자율전공학부 측에 내준 T0는 6명이었지만, 이번 전공 선택으로 31명의 학생들이 진입할 예정이다. 이과대학은 강의실 배정에 본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말했다. 이과대학 권영균 학장은 “작은 강의실에서 수업할 수 없는, 학생 수가 많은 강의가 있어 대형 강의실 배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또 실험실 배정도 학생 수가 많다 보니 분반을 많이 쪼개야 하고 시간 배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학장은 “단과대마다 공간이 공유의 개념이 되는 것이 답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결국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본부에서 공간관리시스템과 공간의 공유 개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기획팀은 “교육시설 관련으

로 유관 부서 및 해당 단과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수업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공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강의실 이용 현황과 실질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예산 편성 불이익 우려 대학 전체 균형 발전 지원

이번 선택 결과에서 한 명도 학생을 받지 못한 단과대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과대학 박진빈 학장은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등록 학생 수가 적어지면 예산 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교수 충원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수업을 다양하게 개설하기 어렵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전공 교육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한다”고 밝혔다.

외국어대학 권세은 학장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과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 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다”며 “자율 예산제가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학생 수 감소가 예산 삭감이라는 악순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략기획팀은 “이번 전공 선택 결과를 근거로 단과대·학과별 T0를 즉각 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 전공 선택 추이와 교육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인원 유입이 적은 학과 구성원들의 예산 및 교원 임용에 대한 우려는 본부 역시 무겁게 고민하고 있는 지점으로, 학문의 특수성과 대학 전체의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전략적 보호 지원 모델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에 열린 자율·자유전공학부 전공박람회 사진. 학생들은 상담과 전공박람회를 전공 선택에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꼽았다.



(사진=대학주보 DB)



4 기획

# 공동체를 농친 교육, 배제의 정서 키워 엘리트 집단의 능력주의 망신이 극우화 부추겨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 ‘내안의극우’ ③ - 사회적 원인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정서는 하루아침에 탄생한 게 아니다. 이번 3회 차에선 ‘정치 성향’이 아닌 ‘일종의 정서’로서 극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다룬다. 특히 ‘교육’의 관점으로 초·중·고 공교육 시스템이 농친 공동체 가치와 함께 대학 교육 문제점, 나아가 엘리트 집단이 어떻게 극우주의를 활용하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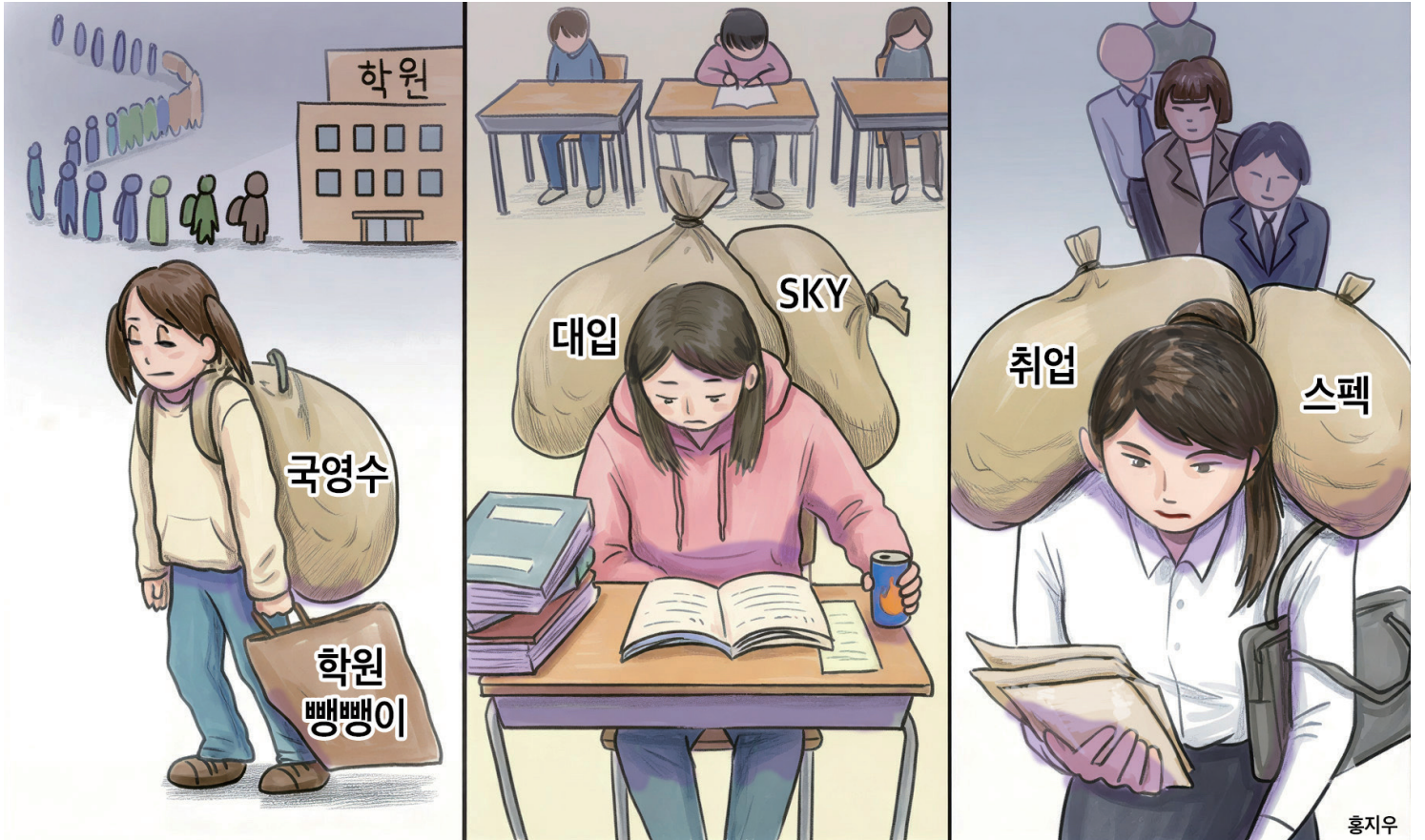
### 학창 시절 내내 무한 경쟁 공동체 가치 농친 공교육 시스템

지난 회차에서 이해한 대로 ‘극우’라는 용어는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특정한 정서·태도를 표현하는 말로 인식된다. 특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쟁사회 속 타자를 위협 요소로 여기고 배척하는 태도’가 대표적이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초등학교 진학 이후부터 무한 경쟁 속에 살며 20대를 맞이했다. 그렇게 타자는 신뢰의 대상이기에 내가 꺾어야 할 경쟁 상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 교육 현황 보고서에는 학업 성취도는 OECD 평균 이상이지만,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선발 방식 또한 매우 경쟁적이라는 분석이 담겼다. 김윤철(한국정치) 교수는 “학생들이 어릴 때 학원만 바쁘게 다녔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습득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교육 심화뿐 아니라 공교육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임형진(한국정치학) 교수는 공교육이 ‘공동의 가치’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교육의 핵심은 공동의 가치를 존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실패했다”고 분석하며 “공교육의 실패가 극우적 청년 세대를 양성한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비평가 이택광(영문학) 교수



한국 사회에선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받으며 경쟁에 뛰어들다. 성인이 되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학점과 취업 등으로 인해 끊임없는 경쟁을 하게 된다.

“

대학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토론과 숙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대학 평가순위를 올리려는

또 다른 경쟁의 연속이 됐다

”

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극우적”이라며 “능력주의적 시스템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와 무관한 열린 사회와 민주주의를 언급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배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스템을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대학은 또 다른 경쟁의 연속 극우등장은 대학교육 실패를 상징

성인이 되고 대학에 와서도 경쟁은 계속된다. 전공 수업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양 과목에서까지 ‘점수 따기’에 급급해진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 시장 경쟁이 학생들을 기다린다. 김 교수는 “대학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토론과 숙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대학 평가 순위를 올리려는 또 다른 경쟁의 연속”이라며 “교수들도 학생들을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 고등학생처럼 대하고 학문적 다양성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한편으로는 대학을 ‘제2의 탄생’을 하는 곳이자 ‘공부를 하면서 시민으로 다시 거듭나는 기회’로 바라봤다. 김 교수는 “기초학문 분야를 없애면서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다 보니 학생들도 영향을 받는다”며 “한 명의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상당히 무력감과 회의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극우주의가 등장한 것은 한국의 근대 교육, 특히 대학 교육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극우주의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은 민주사회와 자유로운 개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고등교육이 실패했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의미와 교육 철학을 다시 되새겨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극단화 “엘리트 집단의 책임 크다”

김 교수는 “한국의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타자에 대한 혐오와 극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문화와 개방주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이 극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청년 극우화가 독특한 점은 보통 중하위 소득 계층에서 일어나는 극우화 현상이 고소득 계층에서 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임형진 교수는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 능력주의를 과시하고 과신하는 성향 때문에 극우화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헌(사회정책학) 교수 역시

“극우로 분석되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라는 건 특이한 현상”이라며 “기득권 집단이 안정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경제·정치적으로 혼란해지면서 자신의 것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또 “상황이 급해지니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천하게 생각했던 기득권층이 그것을 표현하면서 이상하게 극우를 이용하고 있다”며 “혼란 속에서 국적·성별·경제적 수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포퓰리즘으로 몰고 있는 엘리트 집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극우화 현상에서 엘리트 집단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경쟁 때문에 생기는 불안과 박탈감으로 인해 청년 극우화가 진행된다는 건 청년들을 무시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요즘 청년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외국인 혐오, 성별 혐오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갈등을 부추기려는 것 같다”며 “이미 성인이고 사회의 지성인인 20대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혐오하는 것으로 표출할 만큼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지우



# ‘고립·은둔’, “집에 있는 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 2년 새 두 배 늘어난 ‘은둔’...무너진 관계망이 원인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 청년 1인가구 ⑤ -고립·은둔청년

# 앞선 회차에서 다룬 ‘보편적 외로움’이 혼자 사는 일상의 정서라면, 고립·은둔은 관계와 사회활동이 장기간 끊기며 삶의 기능 자체가 흔들리는 상태다. 청년 1인가구가 겪는 외로움이 누적될 때, 혼자 사는 일상은 ‘고립’이 되기도 한다. 이번 회차에선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에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다.

20대 초반인 A 씨는 장기간 집 안에서 생활했다. 외부 활동은 거의 없었고, 방문을 닫은 채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다. 가족의 요청으로 전문가가 집을 찾았지만, 초기에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는 방문을 두드리거나 말을 거는 대신, 일정 시간 문 앞에 머무는 방식을 택했다. 소외된 청년을 지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김재열 대표는 이러한 시간이 약 6개월간 반복됐다고 말한다. 그러자 A 씨에게 처음으로 질문이 돌아왔다.

“누구세요?”

김 대표는 이 순간을 “대화가 가능해진 상태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외부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다.

### 단순 ‘집에만 있는 청년’ 아나 누적된 좌절로 사회와 점점 멀어가

고립·은둔청년은 흔히 ‘집에만 있는 청년’으로 단순화되지만, 실제로 확인되는 과정은 보다 복잡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관계 단절, 진로 실패, 도움 요청의 좌절이 누적된 이후 사회와의 접점을 잃는다.

B 씨는 학교폭력 피해 이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

당시 아버지는 도박 중독 상태였고,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까진 이뤄졌지만, 이후 절차를 이어갈 여력은 가족에게 없었다.

어머니는 “집안 사정을 알지 않느냐”며 더 이상의 대응을 포기하자고 말했다. 이 경험 이후 B 씨는 학교를 그만뒀고, 약 3년간 집 안에 머무는 생활을 이어갔다.

위 사례는 고립·은둔이 개인의 성향이나 단일 사건의 결과가 아닌, 사회적 관계망이 악화된 상태에서 여러 불안 요인이 겹친 결과임을 보여준다.

### 2년 새 두 배 1인가구 고립 위험 상대적으로 높아

고립·은둔청년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청년 비율은 5.2%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조사(2.4%) 대비 두 배

추세는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며 “실패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받아야 하는데 사회에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 코로나도 한몫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대 신형진(사회학) 교수는 “1인가구 청년이 곧바로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정신건강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청년 1

인가구의 경우 사회적 고립으로 전환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사회적 관계망 약화,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신청’이 아닌 ‘접근’ 지원의 출발은 발걸음

전문가들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이 지원이 아닌 발걸음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립·은둔청년 특성상, 자발적으로 신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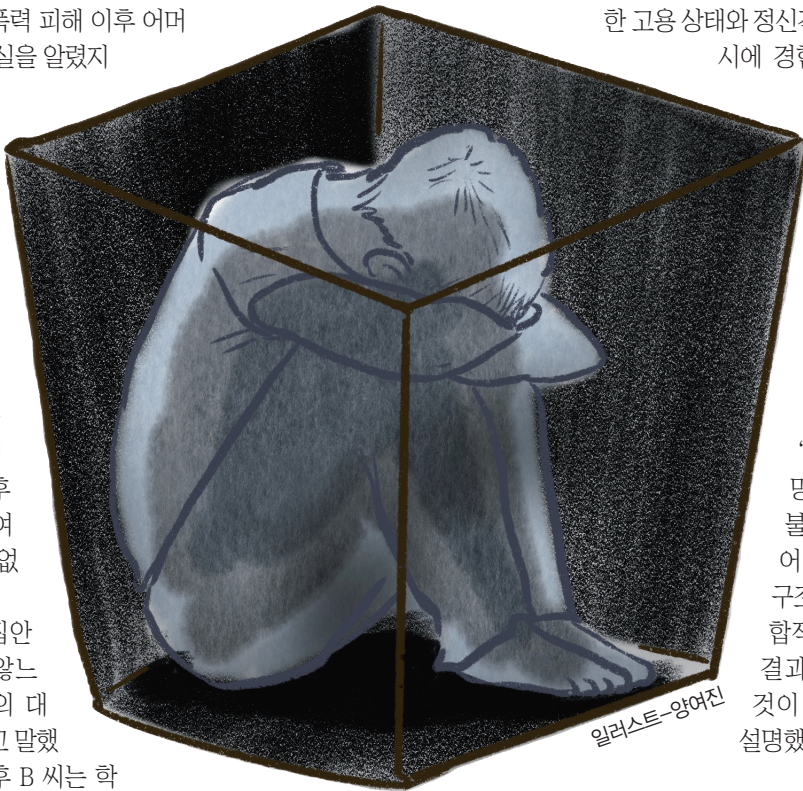
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발걸음 통해 고립·은둔청년을 돕는다. 실제 거주지에 방문해 그들이 작은 변화를 보일 때까지 기다린 후,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고립·은둔청년들은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사람들이다”며 “최소 3개월 동안 찾아가며 라포를(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관계) 형성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지만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단편적인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연결의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청년 아웃리치 프로그램 확대가 우선”이라고 꼽았다. 이어 “대면 접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먼저 온라인에서 관계를 형성한 후 점진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원데이 프로그램이나 단기 활동만으로는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관계를 맺는 시간이 먼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지원도 지속되긴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립·은둔청년 문제를 ‘나오지 않는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립은 선택이 아닌, 관계와 안전망이 무너진 이후에 남은 결과라는 것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먼저 찾아가고 기다릴 수 있는 제도다.



일러스트-양여진



##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 6 문화·스포츠

# 진취적 기상 세운 두개 탑 정주영 회장 후원도

이금화(경희기록관)

경희의유산⑧  
『국제캠퍼스 오벨리스크』

기획 연재 ‘경희의 유산’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탑에 대해 다뤘다. 교시탑, 평화의 탑(광릉), 경희의 탑에 이어, 마지막으로 국제캠퍼스 오벨리스크를 소개한다.

1996년 9월 18일,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사색의 광장에 한 쌍의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높이 27m의 이 탑은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아이디어와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후원으로 탄생했다. 하늘 향해 높이 솟은 탑의 형상은 ‘경희정신’의 두 번째 항목인 ‘진취적 기상’을 상징한다. 탑의 앞뒤에는 각각 문장이 새겨져 있는데, 도서관에서 바라봤을 때, 좌우 정면에 ‘제2 르네상스 햇불 들어, 온누리 밝히는 등불 켜자’라는 문장이 보인다. 뒷면에는 ‘思索(사색)은 眞理(진리)를 뚫어보고, 意志(의지)는 大望(대망)을 成就(성취)한다’는 문장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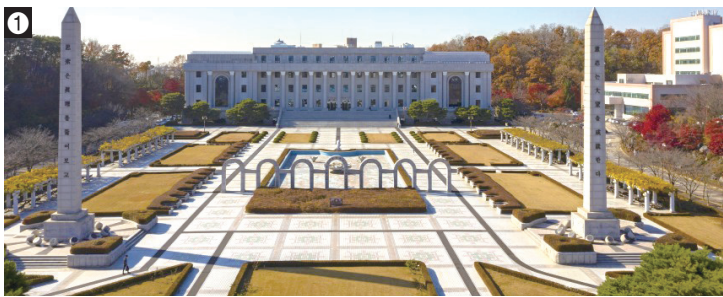
제15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을 겸해 개최된 탑 제막식에서 설립자가 밝혔듯, 이 문구는 “바로 이곳이 인간성 회복과 도덕교육의 중심지가 되는 제2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발원지”가 되길 바라는 뜻을 담고 있다. 탑에 새겨진 ‘제2 르네상스 햇불’은 그로부터 7년 후인 2003

년 설립자가 주장한 사회적 실천 운동, ‘네오 르네상스(Neo-Renaissance) 운동’으로 이어졌다. 경희의 설립 정신 ‘문화세계의 창조’와 함께 새로운 도덕 질서 위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적인 인간사회, 문화적인 복지사회, 보편적인 민주사회, 인류가족 공동사회” 구현을 지향하는 네오 르네상스 운동은 이곳 사색의 광장을 출발점으로 세상을 향해 퍼져나간다.

그런데 이 오벨리스크의 웅장함에 압도돼 자칫 그 주변부까지는 미처 눈길이 닿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탑 기반부와 탑대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양쪽 탑 기반부에 새겨져 있는 것은 설립자가 지은 ‘오 경희여 영원하라’는 제목의 시이다. 탑이 서 있는 지대석 위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원구(圓球)의 단면에는 우주의 주요 행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세계 주요 국가의 수도, 면적, 인구, 평균 기온 등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경희의 젊은 지성들이 우리 인류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와 세계에 대한 폭넓은 시선과 깊은 사색의 힘을 통해 더 큰 미래를 향한 꿈과 도전을 펼쳐나가길 바라는 소망과 기대의 표현이라고 한다.

“오 경희여! 장하도다 그대 경희여, 그 이름 영원하라 경희여. 하늘로 세계로 미래로 영원토록 비상하라.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비상하라.” 탑에 새겨진 설립자의 시 마지막 구절처럼, 오늘도 사색의 광장 오벨리스크는 더 크게 더 멀리 웅비하는 경희와 경희인의 미래를 앞서 지켜보는 듯하다.



①국제캠퍼스 사색의 광장 오벨리스크 전경 사진. ②오벨리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돌에는 우주와 세계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다.



축구부가 '제22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8강 단국대전에서 패하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사진=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제공)

## 8강에서 멈춘 축구부 전승행진 단국대전 0-2패 4강 실패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국제】 축구부가 ‘제22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8강에서 대회를 마감했다. 조별리그부터 전승으로 토너먼트에 들어갔지만, 지난 18일 열린 8강 단국대전에서 0-2로 패하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초반부터 중원에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팽팽한 양상이었으나, 전반 37분 박민서(스포츠지도학 2025)가 태클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며 수적 열세에 놓이는 변수가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5백 전술로 라인을 내리며 실점 없이 전반전을 0-0으로 마쳤다.

체력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후반 5분, 측면이 허물어지며 실점을 해 0-1로 끌려갔다.

만회골을 위해 김광진 감독은 공격수 정주형(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와 김세인(입학 예정) 선수를 투입하며 공격적으로 나섰다. 오히려 뒷공간을 내주며 후반 26분 추가 실점을 허용했다. 추가실점 이후엔 4백으로 전환해 공

격을 시도했지만, 득점 없이 최종 스코어 0-2로 경기가 끝났다.

8강 문턱에서 멈췄지만, 이번 대회 내내 축구부가 보여준 경기력은 인상적이었다.

특히 조별리그에서 화끈한 공격력을 뽐냈다. 7일 구미대전에선 김세인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대학 무대에 데뷔했다. 김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팀은 4-2 대승을 거뒀다.

9일 칼빈대전에선 박민서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2-0 승리를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11일 용인 대와의 최종전에서 2-1로 승리를 거두며 3전 전승,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16일 열린 16강 한남대전에선 극적인 1-0 승리로 8강에 진출했다. 경기 내내 0-0으로 이어지던 경기에서 후반 43분, 임승주(입학 예정) 선수가 올린 코너킥을 장하윤(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1-0으로 극적인 8강행을 확정했다.

조별리그 3경기 3골을 넣은 신입생 김세인 선수는 “대학 소속으로 처음 뛰는 대회라 긴장도 많이 됐다”며 “중요 순간마다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건 팀원들과 선배들이 만들어준 기회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 무대의 수준을 느끼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골문을 지킨 골키퍼 장영웅(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는 “목표했던 1, 2학년 대회에서의 지속적인 출장을 이뤘고,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대회에는 나의 이름에 걸맞게 ‘축구부의 영웅’이 되어 우승을 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회 주장을 맡고 16강전 극적인 결승골을 득점한 장하윤 선수는 “올해 첫 대회라 아쉬움도 있었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팀이 끈끈해져 누구나 부담을 느끼는 강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심판 판정이 경기 흐름을 끊어 자연스러운 진행을 방해한 점은 대학 축구 발전을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확실한 성장을 체감한 만큼, 다음에는 불리한 상황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극복해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오피니언

7

## 사설

## ‘등록금 인상’ 갈등을 풀어갈 해법

등록금 인상을 두고 대학과 학생사회가 팽팽선을 달리고 있다. 오래전 자주 보던 장면이다. 등록금 인상은 단순히 대학의 요구와 학생 부담 가중이라는 이분법적 논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동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늘어나는 등록금 수입이 어느 정도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될지를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세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재정 악화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16년이나 마주한 대학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렇기에 우리학교를 포함한 대다수 대학의 등록금 인상 기조는 유일한 선택지일지 모른다. 그런 기조 위에 우리대학은 시설 노후 및 물가 상승을 이유로 ‘3.19%’ 인상을 발표했다. 당연한 수순으로 학생 사회는 “0.1%를 인상하더라도 인상 자체

에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서로의 입장이 팽팽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팽팽한 등록금 인상 논의는 매년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률을 ‘어떻게’ 산출할지에 대한 기초적인 상호 협의가 더더욱 필요하다.

대학은 물가상승률을 인상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해당 지표에 기댈 수만은 없다. 법정 상한선에 맞춘 단순한 수치 제시가 아니라, 어떤 근거로 인상률을 산출했는지, 학생사회와 대학이 어떤 기준으로 이를 부담할지, 인상분은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 효과는 어떻게 산출하고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은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등록금이 동결된 기간동안 학생도 교육환경

의 저하를 함께 부담해왔다.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명확한 산출식 없이 매년 반복될 인상률에 대한 두려움이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합리적인 소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상률에 대한 명확한 산출식을 마련하면,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 측의 설명을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등록금 고지서 발행 직전이나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직전년도 2학기 초반부터는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이 차기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수입과 지출계획을 제안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등록금 인상 논의의 핵심은 ‘얼

마나 올릴 것인가’가 아니라 ‘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있다. 학교가 말하는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다면 그 부담을 대학과 학생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부담할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우선 고민해야 한다.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대학 대비 결코 적지 않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대학은 재정 확충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속시원히 밝혀야 한다.

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반복될수록 필요한 것은 주장과 대립이 아닌, 수치와 구조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다.

등록금이 더 이상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교는 학생을 설득의 대상이 아닌 논의의 주체로 세우는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 세시봉

## 무너진 상아탑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최근에 지원한 아르바이트 열 군데에 연속으로 떨어졌다”는 친구의 경험담을 듣고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너무 많은 경쟁에 대해 생각했다. ‘금턴’이라고 불리는 인턴 채용 경쟁부터, 여러 자격증이 필수였던 공군 입대 경쟁도 떠올랐다. 경쟁에서 밀려나는 아픔보다 내게 더 씁쓸한 건 경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우리의 태도다.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옆자리 친구를 능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기 때문일까, 우리나라는 경쟁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중고등학교와 다를 바 없는 대학의 학생 평가 기준에 의문을 가지는 학생을 본 적이 없다.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대학의 목적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학생으로서 대학에 몸담았던 내겐 생소한 문장이다.

적어도 내가 봤을 때 ‘인격을 도야하고, 심오한 학술이론을 연구하는’ 학생 보단 ‘좋은 학점을 받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생이 훨씬 많았다.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여유롭던 중앙도서관에 자리가 부족해진다. 그때만 갑자기 모여 똑같은 강의자료를 암기하고 똑같은 시험을 통해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나뉘는 우리의 모습은 독서실 다니던 중 고등학생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고 있으면서도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한다.

과거에 대학은 속세에서 살짝 벗어나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상아탑’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지금은 아무도 대학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대학 입시 경쟁에 지쳤고, 졸업 이후에도 취업 경쟁을 피할 수 없을 우리가 잠깐 경쟁에서 벗어날 곳은 대학뿐이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는 짧은 시간조차 경쟁에 허덕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변화 없이 시간만 흐른다면 10년, 20년 뒤 대학의 가치는 더욱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경쟁만이 남은 사회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란 요원하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때다.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고립

## 고립의 책임

하시연 기자  
hse0622@khu.ac.kr



청년 1인가구 연속기획의 마지막 회차로 고립·은둔청년을 취재했다. 이 회차를 끝으로 연재를 마무리하며 분명해진 생각이 있다. 고립·은둔청년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설명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다. 혼자 사는 삶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고립은 특별한 사례가 아닌, 구조적 조건이 맞물릴 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가까웠다.

취재 과정에서 접한 고립·은둔청년의 사례는 극단적이지 않았다. 이들은 한때 학교에 다녔고, 진로를 고민했으며 도움을 요청한 경험도 있었다. 다만 그 요청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고립은 반복된 좌절이 누적된 결과였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복’이 이들에게선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대화가 가능한지, 그들의 일부를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신호였다. 이들의 시간은 느렸고,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의 속도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했다. 이 간극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와 시선은 고립을 오히려 고착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원 방식 역시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 현행 제도는 신청과 참여를 전제로 설계돼 있지만, 실제 고립·은둔청년은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수차례의 방문과 대기, 반복적인 접촉을 통해 신뢰를 쌓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역사회 주도의 찾아가는 지원과 같이 장기적 접근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청년 1인가구 연속기획은 개인의 생활 방식을 통해 사회적 조건을 바라보는 시도였다. 그 끝에서 만난 고립·은둔청년은 고립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혼자 사는 삶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고립·은둔청년을 예외로 보지 않고, 관계가 단절로 이어지는 과정을 예방하고 먼저 찾아가 연결하는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만평 현실의 틈 속 외로움

교시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mailto: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



8 종합

# 진료 · 감정 · 농업을 잇는 경희 AI 스타트업의 도전

## CES 2026 3개 기업 참가...기술 경쟁력 선보여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26이 ‘피지컬 AI’를 주제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우리학교 서울 RISE 사업단의 지원으로 교내 구성원이 주축이 된 스타트업 이짓, 잇피, 네오바이오가 참여해 각자의 AI 기술과 비전을 세계 무대에 선보였다. 의료 · 로봇 · 농업 등 AI의 가능성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한 세 기업의 대표를 만나 AI 기술의 미래와 비전을 들어봤다.

### 병원 밖에서도 진료는 계속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잇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잇피(Itphy)’는 2년 연속 CES에 참가하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CES 2025에서 ‘링닥 케어(RingDoc Care)’를 선보인 데 이어, CES 2026에서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AI 기반 관절 기능 분석 디바이스 ‘링닥 모션(RingDoc Motion)’을 공개했다. 링닥 모션은 사용자가 집에서 약 5초간 촬영하면 AI가 신체와 관절 각도를 분석해 진료 전 문진부터 맞춤 재활 처방, 수행 및 모니터링까지 전 주기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임상 검증 연구에서는 98%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잇피의 공동대표이자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이성민 대표는 “실제 환자들을 만나면서 진료시간 이외에 환자들의 근골격 건강 회복을 위한 디바이스를 고민하다 ‘링닥’이라는 어플을 고안했다”며 “실제 환자들의 만족도 피드백 또한 매우 긍정적이다”고 덧붙였다.

잇피의 성장에는 우리학교 캠퍼스타운 RISE 사업단 지원이 뒷받침됐다. 사업단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정 지원과 함께 교수진 등 인적 인프라를 연계했다. 이재준 공동대표는 “UI 디자인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 학과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기술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ES 현장에서 링닥 모션은 특히 의료비가 높은 미국 의료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현재 1000개가 넘는 미국과 인도 등 해외 여러 지역병원에서도 ‘링닥’을 도입한 상태다. 이성민 대표는 “지역마다 골격 특징은 너무 다양해 더



①‘잇피’는 AI 기반 관절 기능 분석 디바이스 ‘링닥 모션’을 공개했다. ②‘이짓’은 AI 반려로봇인 ‘터보’를 공개했는데, 이는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고객의 표정과 행동을 분석한다. ③‘네오바이오’는 AI 기반 바이오 센싱 솔루션을 선보였다. (사진=산학협력단 제공)

많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세계로 뻗어나갈 계획이다”며 돈이 없어 진료를 보지 못하는 환자가 없게 하는 것이 잇피의 비전임을 밝혔다.

### AI가 먼저 말을 건네는 세상 AI 반려로봇 스타트업 ‘이짓’

“AI가 먼저 말을 걸어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짓(Ezit)’의 양현경(경영학 2020) 대표는 AI 반려로봇인 ‘터보(Turbo)’를 통해 CES 2026에 참여해 반려로봇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터보는 사람의 명령어를 통해 반응하는 수동적인 기존 AI 반려로봇과 달리, 로봇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고객의 표정과 행동 등을 분석하고 관련 메일함, 최근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능동

적으로 반응한다. 양 대표는 “미래 피지컬 AI 시대에는 인간과 AI의 감정적 교류가 핵심”이라며 “AI가 먼저 다가오는 상황을 구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AI 시장 창업에 뛰어든 양 대표는 지금 위치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큰 장벽은 자금이었다. 양 대표는 각종 공모전 상금과 정부 지원

사업,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고, 이전에도 칼로리 분석 AI 서비스, 다이어리 앱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 그는 “소비자의 혹평을 받은 다이어리 AI 등 실패했던 경험들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줬다”고 회상했다.

기술적 고민에는 교수진의 조언이 큰 힘이 됐다. 양 대표는 “빅데이터융합학과 박재훈 교수님을 찾아가 궁금한 점을 질문할 때마다 성심껏 답해주셨다”며 “학생 창업가에게 큰 버팀목이 됐다”고 전했다.

타학교 인공지능학과 친구와 함께 2인 기업으로 출발한 이짓은 현재 12명의 팀으로 성장했다. 양 대표는 “CES 참가는 팀원들에게는 큰 동기 부여였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꿈 향한 과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 바이오 센싱의 유니크한 변화 농업 바이오 센싱 기업 ‘네오바이오’

‘네오바이오’는 우리학교 교수와 학생 등 교내 구성원으로만 이뤄진 스타트업이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병해충 문제를 해결하는 AI 기반 바이오 센싱 솔루션을 선보였다. 형광 프로브 스프레이와 AI 스캐너를 활용해 과수화상병 원인균을 신속히 진단하는 기술로 농업 분야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형광 프로브 스프레이는 특정 병원균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된 ‘형광 물질’을 분사하는 약제다. 특히 기존 바이오 센싱 기술과 달리 ‘형광 센서’ 방식을 적용한 점이 차별화된다.

홍현준(6차산업융합경영학 석사 4기) 대표는 “보이지 않는 병해충을 가시적인 데이터로 전환해 농업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네오바이오는 법인 설립 이후 약 1년간 기술 고도화에 집중해 왔으며 CES 2026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장 도입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따른다. 홍 대표는 “농가 주인분들이 대부분 개성이 강하고 본인 방식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AI 기술 도입을 설득시키는 것이 때론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병해충에 대한 불안 속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현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앞으로 바이오 센싱이 가능한 균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비전을 밝혔다.